

## 48장.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고 축복하는 야곱

### 1. 두 손자를 입양함 (48:1-7)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갔다. 야곱이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갔다. 그것은 자기와 두 자녀가 족장인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함일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삼음으로써 요셉에게는 두 몫이 돌아갔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데 요셉에게 두 몫이 돌아감으로써 야곱의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갔다(대상 5:2).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들은 후에 복이스라엘의 강력한 두 지파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 2. 입양 의식 (48:8-20)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된 두 아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야곱에게 나아갔다. 입양의 의식은 무릎 위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지만 축복의 의식은 손을 머리에 올려서 하는 것이었다.

요셉은 앞을 잘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도록 하려고 그를 자기의 왼손에 잡고 야곱의 오른편으로 향하도록 나아갔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손에 잡고 야곱의 왼손에 향하도록 하였다.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게 한 것은 오른손이 힘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출 15:6; 시 89:13; 잠 3:16; 전 10:2; 마 25:33; 행 2:33).

야곱은 요셉의 의도와는 달리 팔을 어긋나게 하여서 축복하였다.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임하게 한 것이다. 야곱은 시력이 약하였지만 그의 통찰력은 여전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마지막 직무를 수행하였다. 잘 볼 수 없는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뿐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면서 복을 주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데서 알 수 있다.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시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도 안다고 하면서, 둘째인 에브라임이 첫째인 므낫세보다 앞설 것이라고 하였다. 이 뒤바뀐 순서는 이미 입양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말할 때에도 나타난 것이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간과하였다(48:5). 또한 야곱이 이미 복을 주었으면 그 복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 3. 출애굽에 대한 소망 (48:21-22)

야곱은 마지막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 입양 의식과 축복 의식을 행한 다음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고 말하였다.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다 마친 사실을 말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였다.

그의 소망의 내용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 충만할 만큼 번성케 하신 후에 그곳을 나오게 하여 조상의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 묵상과 실천:

##### 장자와 차자의 문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꾸어서 복을 준 일이 길게 기록되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첫째, 두 아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므낫세가 원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는 것이 복을 비는 말이

되었다면 므낫세도 동일한 복에 참여하는 것이다. 차이는 단지 누가 먼저 오는가에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주님께서도 “내 좌우 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마 20:23)고 말씀하셨다. 선택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의 상급 개념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이해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둘째, 이것은 야곱의 일생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줄 때에는 차자를 더 높이 세운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가졌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은 형의 복을 빼앗으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생의 말년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둘째에게 복을 더 주신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복을 주었다. 지금 장자 르우벤 대신에 요셉의 두 자녀를 복을 주는 것과 두 자녀 중에서도 둘째를 앞세우는 것도 둘째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확정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의미를 지닌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우위를 차지하였다. 복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사 7:2, 5, 8-9; 렘 31:9; 호 4:16-17; 5:3; 7:1; 9:13; 12:1, 8). 야곱은 입양할 때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48:5)라고 하여서 에브라임을 앞세웠는데 복을 줄 때에도 에브라임을 앞에 두었다.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침상에 누워있는 야곱은 어떤 적극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출생 한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 48장 익힌 문제

1. 야곱은 누구를 양자로 삼았습니까? (5점)
2. 야곱은 라헬을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는데 에브랏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7점)
3.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은 누구를 축복한 것입니까? (15점)
4.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우는 누구입니까? (19점)
5. 야곱은 죽으면서도 그 후손이 어디로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21점)